

글: 최미령 제남병원 사진: 홍성표 본부 사업운영과



중국방노협회 결핵관계자 방한, 그리고 통역

필자는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 도문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 경북 안동시에 소재한 안동과학대학을 졸업 후, 인접한 의성군 봉양면(도리원)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병원인 제남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선족 중국인이다.

지난 9월초 어느 날, 원장님께서 중국방노협회(중국결핵협회) 관계자들이 대한결핵협회를 방문하는데 중국어 통역이 필요하다며 필자에게 그 통역을 맡아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국방노협회는 한국의 결핵협회와 비슷한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단체로, 이번 한국 방문단은 주로 지역의 결핵예방치



료소 대표들로서 중국 국가결핵사업(National Tuberculosis Program, NTP)의 일선 사업 책임자 들이며 결핵 전문가 들이었다. 따라서 방한 기간에 방문하는 기관 및 면담 인사들은 모두 결핵과 관련된 전문분야 분들이었다.

처음 통역을 섭외 받았을 때 결핵에 대한 전문지식이 별로 없는 탓에 통역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지만 오랜만에 중국인(모국인) 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하였다. 돌이켜보면 한국에서 체류한 지난 5년간 한국말만 하면서 생활한 탓에 중국말, 특히 전문 용어의 통역에 대한 자신감은 없었으나 그나마 제남병원 원장님이 결핵분야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탓에 결핵전문기관 방문, 결핵관련회의 참석 등 몇 차례의 결핵분야 중국어 통역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통역 섭외를 받아드리기로 하였다.

대한결핵협회 사업운영과 안전기 과장님과

홍성표 선생님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9월 25일 일요일. 드디어 시골사람(필자)이 서울 구경을 가게 되었다. 누군가를 마중하러 와서였을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어렴풋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이 뇌리를 스쳤고, 이내 그때와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을 망각하고 마치 한국 사람으로 외국인을 마중 나온듯한 기분이었다. 비행기 착륙 시간이 되어 왔고, 우리는 방문 손님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중국어로 된 피켓을 들고 기다리기로 하였다.

오후 2시경 북경에서 출발한 중국국제항공이 도착하고 우리는 C번 출구에서 중국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비행기 도착 후 1시간 가량이 지났음에도 중국 일행들이 나타나지 않아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런 와중 오히려 중국 일행들이 우리 마중 나온 일행들을 찾아오는 해프닝이 발생하여 당황스러웠다. 이는 비행기 도착 안내 표시가 처음에는 B번 출





구로 표시되었다가 C로 바뀌는 탓에, 우리는 C에서 기다리게 되었고 중국 일행들은 처음 표시대로 B에서 나오게 되어 이런 해프닝이 생긴 것이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건넬 틈도 없이 중국방노협회에서 오신 허베이성 질병관리본부 결핵예방통제연구소 장 량잉 책임자, 광시성 질병관리본부 결핵예방통제연구소 리우 웨잉 책임자, 장수성 질병관리본부 결핵예방통제연구소 주 리메이 부책임자와 일일이 악수를 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한국에서 중국 사람을 만나서인지 너무 반가웠고 그분들도 중국 조선족인 필자를 보고 너무나 좋아했다.

주말에다가 호텔로 이동후 여장을 풀기에는 이른 시간이라 대한결핵협회 분들의 안내로 우리는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가기로 했다. 예전부터 외국의 차이나타운 얘기는 들어봤으

나 한국에도 차이나타운이 있다는 얘기는 금시 초문 이였기에 놀라웠다. 차이나타운 입구에 들어서니 붉은색 간판과 중국 홍등이 걸려 있는 주위 배경에 마치 중국 거리에 온 느낌을 받았다. 차이나타운에 도착 후 우리는 바로 한중 문화관으로 들어갔다. 한중문화관에서 우리는 한중 문화와 역사, 경제, 사회, 생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서로의 의사를 전달했다. 필자의 경우 양국 문화에 관심을 보였으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의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다.

이후 우리는 한국인들이 휴양지로 많이 찾는 월미도로 향하였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서해안 연평도 피격사건이 발생하였고 방송에서 자주 등장하던 적막하고 살벌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월미도의 거리에서는 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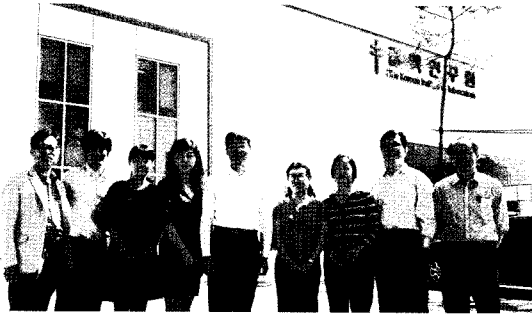
는 노래 소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었다. 월미도의 푸른 앞바다를 바라보니 바다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나는 모든 스트레스가 확 풀린 듯이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 들었다. 중국 일행들도 피곤해 보였지만 마냥 즐거워했다. 월미도 구경을 마친 후 안진기 과장님의 저녁 메뉴 추천으로 전통적 한국음식인 불고기와 양념갈비를 맛보았다(이후 들은 이야기이지만 중국 일행이 한국에서 맛본 여러 가지 음식 중 으뜸은 불고기 였다고 한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앞으로 5박 6일 동안 머물게 될 서울 숙소로 옮겨 여장을 풀고 다음날의 일정을 위해 일찍 잠을 청하였다.

이튿날 월요일. 우리는 일정대로 대한결핵협회 본부로 향하였다. 아침부터 통역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마음은 설레임반 긴장감반이었다. 대한결핵협회 본부 마당에 들어서니 붉은 프렌카드에 환영 문구가 중국 일행을 반기였다. 중국어로도 쓰여 있어 일행들에게 친근감을 주었다. 먼저 회장님 사무실에서 간단한 간담회를 가지고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대한결핵협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문영목 회장

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협회의 사업소개를 통역하기 시작하였다. 사업소개를 통해 협회에서는 결핵환자 및 결핵에 대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업소개를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중국 일행들은 One-Stop 결핵검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One-Stop 검진 차량의 수도권 검진 일정으로 시승을 할 수 없게 되자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후 중앙지회 임상검사센터를 견학하면서 중국 일행들은 검체 의뢰처, 검사방법, 검체 보관에 대해 질문을 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 일정은 한국문화체험 일정으로 유명한 인사동 거리를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외국인들이 북적이었다. 인사동에서 한국의 전통 물건들을 구경하다보니 점심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게 되었고, 나는 점심 메뉴로 비빔밥을 추천하였다. 웬지 한국에 오면 비빔밥을 먹어야 될듯해서..... 다행히 장수성 부책임자님이 “중국에 있을 때 한국 비빔밥을 먹어봤는데 오





늘 진짜 한국 비빔밥을 먹어보니 정말 맛있어요.”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일행 분들도 비빔밥을 맛있게 드셔 주셨다. 필자는 “중국은 너무 많은 종류의 반찬과 복잡한 식사문화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비빔밥은 여러 종류의 음식을 한 그릇에 담아서 먹으니 과학적이고 편리함이 강조된 식습관”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점심식사 후 우리 일행은 인접한 경복궁으로 이동하였다.

방한 둘째 날, 아침 일찍 출발하여 충북 오송에 소재한 결핵연구원을 방문하였다. 연구원을 견학하면서 중국 일행들은 결핵연구원의 다양한 연구사업, 최첨단 검사장비들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역시 한국이 중국보다 선진적이네요. 중국도 언제 한국처럼 이렇게 결핵을 연구하며 검사하고 치료하겠어요.”라고 하시면서 한국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핵연구원 견학을 마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한국 민속촌으로 향하였다.

민속촌 입국에 들어서니 TV 사극에서 많이 보았던 집들과 풍경들이 눈앞에 들어왔다. 중국 일행들도 중국과 다른 집들을 보고 마냥 신

나했다. 저녁식사 후에는 서울의 상징이자 아름다운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타워로 향했다. 중국 일행들은 “한국 서울타워가 중국에 있는 상해의 동방명주랑 같은 것이네요”라고 하시며 서울타워를 보고 아름다움을 금치 못했다.

서울타워 케이블카 속에서의 여자 주인공에 대한 남자 주인공의 프로포즈 장면 등 TV 속에서만 보아왔던 서울타워 케이블카를 타니 너무 신났다. 곧이어 서울 야경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다. 반짝반짝 불빛으로 이루어진 야경이 너무 예뻐다. 정상에 도착하니 시원한 바람이 우리들을 반겼다. 우리 일행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사랑의 문구가 담긴 수많은 자물쇠들. 자물쇠를 보며 의아해 하는 중국 일행에게 “사랑을 자물쇠로 채워 영원하길 바라는 연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예쁜 불빛으로 단장된 서울타워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전망대에 오르니 온 서울시가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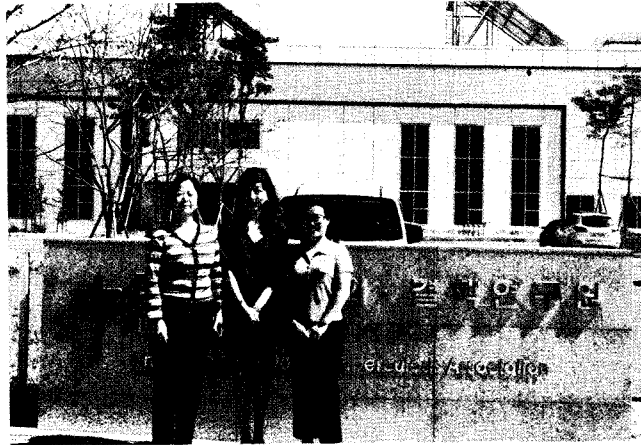


다 들어왔다. 중국 일행들은 “서울 야경이 너무 예뵤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며, “우리 서울을 다 봤다”, “중국 가서 사랑해야지”라고 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방한 3일째는 마산에 소재한 국립마산병원의 견학을 위해 이른 아침 KTX 열차로 출발했다. 마산역에서는 정일주 울산·경남 지사장님, 박덕성 사업과장님이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우리 일행은 바로 국립마산병원으로 향했다. 김천태 국립마산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갖은 후 흉부내과 강형석 사무관님으로 부터 병원 소개를 받았다. 우리 일행은 병원의 환자관리 방법 및 치료와 병실, 검사실, X-ray실 및 외래 등의 현장 견학을 통하여 결핵환자의 치료가 결핵의 전파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국립마산병원에서의 짜임새 있는 자세한 설명과 현장 견학은 다음날까지 이어진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중앙지회 복십자의원 등의 견학 일정에 있어 전초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귀국하는 마지막 날. 중국방노협회 일행들은 대한결핵협회 본부를 다시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일일이 고마웠다고 말을 건네며 송별 인사를 하였다. 이내 유익했던 시간이었으며 아쉬운 마음을 갖은 채 발길을 옮겨 인천공항으로 출발했다. 우리는 공항으로 가면서 지난 5박 6일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떠올리며 서로의 연락처와 메일 주소를 주고받았다.

공항 도착 후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이 들어



서인지 발걸음이 무거웠다. 중국 일행은 한국의 농촌과 도시의 깨끗한 길거리, 예의 바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소지품 도난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너무 부러웠고 이번 방한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워서 “짐 가방보다 머릿속이 더욱 무겁다”고 말하였다. 대한결핵협회에 고마운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중국 일행의 마지막 통역 요청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끝으로 나의 통역 여정은 끝이 났다.

이번 대한결핵협회와 중국방노협회의 한국어-중국어 통역을 맡으며, 통역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상대방에게 단순히 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과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필자의 출신이 조선족 중국인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문화적 이해와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갖을 수 있었다.†